

## “무더진 마음”

(마가복음 6:41-52)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모진 인생의 역풍 앞에서 쉽게 주님을 잃어 버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폭풍을 뚫고 물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위의 기적’은 사실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단락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두 개의 에피소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모범답안, 제자들은 번번이 낙제 답안지를 내놓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그저 근심 걱정만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변변치 않은 소년의 도시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축복하셨고, 들판에서 성대한 성만찬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놀랍게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사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해산하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마가복음 6:46).**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금새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기도가 없으면,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적의 주인공조차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신앙생활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면 제자들처럼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깊숙이, 간섭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산 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배 위에서 바다 기도하라고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도 모른 채 제자들은 그저 신나게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낮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 후 배를 탔는데, 어느새 새벽 서너시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밤을 새워가며 노를 저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만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에 뒤덮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v. 50b)."**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 곁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안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안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27).**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뎠다 (마가복음 6:51-52).**

제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들의 '무뎠진 마음' 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미적지근한 마음이 돼버렸습니다.

**하루는 스펀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 두 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4,366 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하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9 년도 새해를 미지근한 믿음, 무더진 마음으로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해야 합니다. 내 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 먼저 내 문제를 맡겨드려 봅시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다. 곧 거센 풍량이 잠잠해 지고,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이런 멋진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몹시 놀랐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빵으로 배가 가득 찼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영혼은 더욱 무더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신 기적, 바람을 멈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긴 밤 새워가며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폭풍 뚫고, 내 곁에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 가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단 한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적 뒤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디어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응답으로 인해 ‘기도중단’이 되면 안됩니다. 삶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모진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무더졌다면 다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28-31).**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 다시 나갑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22 장 아침 해가 돋을 때)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마가복음 6 : 41-52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때로 우리의 삶이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적이 있습니까?
  2. '감사 없는 기적' 이나 '감사 불감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 혹시라도 감사에 '무뎠진 마음'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를 드려 보세요.
  4. 2019 년 새해의 소망과 거룩한 결단을 사랑하는 속회 식구들과 함께 나눠 보세요.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635 장 하늘에 계신)
- 주기도문